

“뜨거운 지구를 식혀라” 파리 협약 주목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미·중·일 등 150국 정상 참석
세계 곳곳 협약 채택 촉구 시위
온실가스 줄여 2도 내 상승 억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지난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가운데 세계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행동에 나서자며 시위를 벌였다.

13일 파리 테러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시위 금지령이 내려진 파리에서는 환경 운동가들이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에서 빈 신발을 전시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날 파리 시내 레퓌블리크 광장에 수천 켤레의 신발을 늘어놓고는 행진을 금지한 프랑스 정부에 항의를 표시하면서 협약 타결을 촉구했다. 운동화·구두·부츠 등 다양한 신발이 광장에 나란히 전시됐다.

행사 주최 측은 “신발 무게만도 4t이 넘는다는”면서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신발 한 켤레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신발은 교황이 신던 신발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회를 주최하는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운동화를 한 켤레 내놓았다.



집회 금지령에 ‘신발 시위’ 지난 29일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한 광장입구에 운동화, 신발, 부츠 등 다양한 신발이 전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가와 시민은 애초 이날 파리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13일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진 이후 테러가 우려된다면서 기후변화 행진을 취소했다.

또 행진을 대신해 이날 4000여 명의 시민은 파리 시내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나시옹 광장까지 약 3km에 걸쳐 인간띠를 이으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각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최루 가스를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해산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시드

니·베를린·런던·뉴욕·상파울루·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기후변화협약 타결 촉구를 위한 행사가 열렸다.

중고 지도자들은 전날 유엔 기후변화협약 조직위원회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 180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프랑스 경찰은 테러 이후 상황을 고려해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의 집회와 시위 금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당사국 총회 공식 개막일인 30일에도 집회와 시위가 불허된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에 대비, 내년 2월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했으며 총회 경호를 위해 경찰 1만1000 명을 동원하고 국경

도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 회의를 앞두고 24명의 환경운동가를 가택 연금했다.

이 총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약 15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등 4만여 명이 모인다.

기후변화협약 196개 당사국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협의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 타결을 위해 이날 반기문 총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논의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 지혜로운 재상 진평

진평(陳平, ?~BC 178)은 한나라의 개국공신이다. 한 고조 유방을 도와 한 제국 수립에 크게 기여했고 고조 사후에는 권력을 농단한 여씨 일족을 타파하여 유씨 왕조를 부활시켰다.

그는 허남성 난고항의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무위자연을 강조하는 황로술을 깊이 공부하였다. 진시왕 사후 친구 위무지의 추천으로 유방에게 도위에 임명됐다.

“진평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다. 여러 장군들에게 돈을 받고 일의 편의를 봐준다고 한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라며 주발, 관영 등 장군들이 반발했다.

그는 “반달터리로 온지라 남에게서 돈을 받지 않으면 군자금을 써야 할 형편이었다.”며 항변했다. 이후 유방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 그는 평생 여섯 번 기책을 내놓아 유

패색이 짙은 유방측은 진평의 계책에 따라 흉노의 지도자 목목선우의 왕비 연자에게 뇌물을 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조 사후에는 황후인 여후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여후는 여씨 일족을 왕으로 임명하려 했다. 재상인 왕릉은 유씨 외에는 왕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고조의 유지를 들어 단호히 반대했다. 반면에 그는 순순히 여후의 뜻에 동조했다.

그는 왕릉의 비판에 “곧은 말로 조정에서 다루는 일은 귀공만 못하다. 그러나 사직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유씨의 자손을 지키는 일은 귀공이 우리만 못하다”고 응대했다.

그는 여후가 죽기만을 기다렸다. BC 180년 여후가 세상을 뜨자 주발과 힘을 합쳐 여씨 일족을 추살하고 유씨 왕조를 부활시켰다. 유방의 아들 유항을 제위에 오르게 하니 후일 명군으로 칭송받은 문제다.

문제와 재상 진평간의 문답은 재상의 덕목과 역할에 관해 많은 것을 시

유방의 숨은 개국공신 ‘기책의 대가’

방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한다. 적 내부를 이간질시키는 반간공작(反間工作)에 뛰어났다. 형양 전투에서 유방은 항우군에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는 황금 4만근을 여기저기 뿌려 범중, 종리매 등 항우군 장수들이 유방에 몰래 동조하여 항세를 멸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항우는

축근 장수들을 의심해 참모 범중이 형양성을 기습하자는 제안을 거부한다. 범중은 크게 화를 내며 “이제 천하의 대세는 기울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해도 될 것이다. 쓸모없는 본인은 이제 낙향하려 한다”며 항우를 떠났다. 명참모인 범중을 잃은 후 항우군은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천하통일 후 조왕 한신의 반란 소식에 수도 장안이 들끓었다. 그는 군사 천재인 한신과의 정면 싸움을 피하고 그를 붙잡을 계책을 내놓았다. 한고조가 운동호를 순항할 예정이니 제후들과 진의 땅에서 만나고 싶다고 속였다. 마중 나온 한신을 포박하여 장안으로 압송했다. “날썹 토끼가 죽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어 살아 먹던 다”는 토사구팽(虎死狗烹)의 고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북방 흉노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평성에서 양측 군대가 결전을 벌였다.

사한다. “재판은 전국에서 연간 몇 회 열리느냐” “국고의 수입과 지출은 연간 얼마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재판에 관한 일은 정위가, 재정에 관한 일은 치속내사가 잘 아니 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응대했다. 그러면 재상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재상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고 음양을 다스려 사시시철을 순조롭게 하고 아래로는 만물이 제때에 성장하도록 한다. 밖으로는 오랑캐와 제후를 다스리고 안으로는 백성을 복종하도록 하며, 관리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한다.”

BC 178년 세상을 떠나자 문제는 그에게 헌후라는 시호를 내린다. 생전에 그는 “만약 내 자손이 관직에서 쫓겨난다면 이는 내가 기책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마천은 사기 진평열전에서 “진평은 항상 뛰어난 계책을 내놓아 분규와 나라의 환란을 구했다. 여후의 시대는 다사다난했다. 그러나 진평은 위난을 벗어나 한나라의 종묘를 편안하고 명예롭게 생애를 마쳐 어진 재상으로 찬양받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지모를 갖춘 현명한 재상(賢相)이었다.

“낙태 반대” 10명 사상 총격사건, 미 대선 영향 촉각

공화당, 피해 단체 폐지 주장

미국 사회를 충격 속으로 밀어 넣은 미국 콜로라도 주 총격사건이 미국 대선 레이스에 파장을 드리울지 주목된다.

총격이 발생한 장소가 정치적으로 민감성을 지닌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진료소이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연맹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낙태용 호르몬제, 낙태에 찬성해온 민주당으로서 이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반면, 낙태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이 단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전선”을 형성해왔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대목은 옹의자가 자신의 낙태반대 주장을 극대화하려고 이 가족계획연맹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커지

는 점이다.

그동안 낙태에 반대하며 가족계획연맹을 공격해온 공화당 대선주자들로서는 ‘움짤’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명분이 옳아도 무고한 10여 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폭력적 수단으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29일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시를 방문한 계기에 쓰시마 방비대(防備隊) 본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한국계 기업의 숙박시설을 시찰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안전보장면에서 우려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자위대 시설의 주변을 제대로 경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당 등에서는 자위대 및 미군 기지 주변에서 외국 자본이 부동산을 보유하

일 방위상, 쓰시마 자위대 기지 인근 한국계 기업 경계

“외국 자본 부동산 보유 문제”

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방 방문 기회에 한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시찰하며 기지 주변의 외국계 시설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29일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 시를 방문한 계기에 쓰시마 방비대(防備隊) 본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한 한국계 기업의 숙박시설을 시찰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안전보장면에서 우려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자위대 시설의 주변을 제대로 경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당 등에서는 자위대 및 미군 기지 주변에서 외국 자본이 부동산을 보유하

는 것을 문제시하는 시각이 있다.

작년 10월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 의원이 “한국에서 온 손님과 한국 자본에 의한 토지 거래가 많다”며 “쓰시마가 위험하다는 우려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나카타니는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실험 실시에 대해 “북한은 SLBM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사일 공격의 시사와 도발적 언동은 우리 나라의 안전에 타당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쓰시마 시 항공 자위대 우니시마 기지에 신형 레이더를 설치하는 비용을 2016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다면서 “남서 지역의 정보 수집, 경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레스토랑 건물

토지 2,211㎡(668평) 건물 4,218㎡(1276평)

- 파격적인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문의 010-7570-7525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용봉동 굿모닝타운 2층상가 매매

- 전용289㎡ 현재 카페 인테리어+체육시설적합 공실포함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